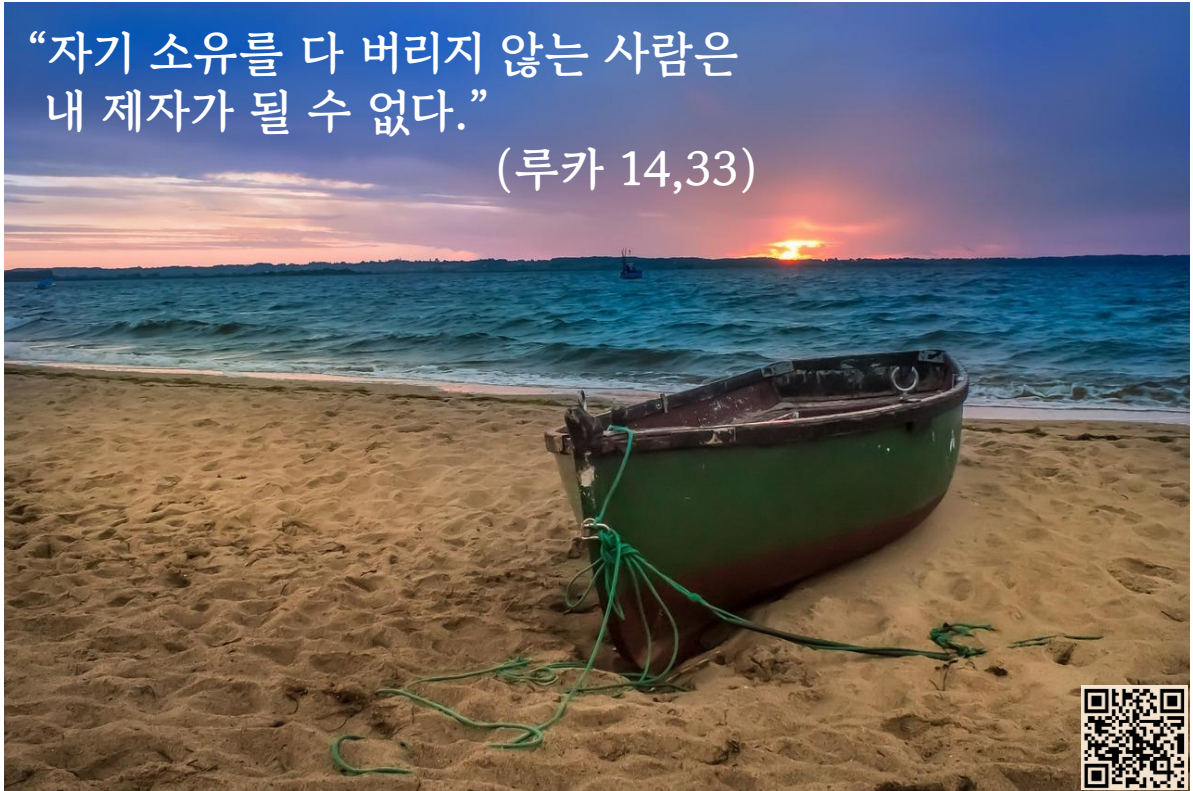


아quem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23주일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쓰고 천상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 제1독서

지혜 9,13-18

-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필레 9L-10.12-17

- **복음환호송** 시편 119(118),135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4,25-33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하느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4. 아캠 순례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김성인 미카엘 아캠 전담 사제와 순례자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순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여정 안에서 은총을 나날이 더하시어
이들이 믿고 바라는 바로 얻은 신앙의 길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영성체송

시편 42(41),2-3

[아부다비] 신입 복사 입단식

첫영성체를 마친 3 명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자리에 많은 축복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 ▶ 일 시: 9 월 6 일 토, 12:00 미사
- ▶ 후 보 자: 권지오 루카, 김지완 레오, 이성진 가우덴시오

Altar Serving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 ▶ 일 시: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순례지: 메주고리에 및 주변 외곽 지역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과 16명의 아캠 순례단이 순례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며 순례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상: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시: 9 월 27 일 (토), 20시 (UAE)
- ▶ 방법: 아캠 공용 줌으로 접속 (회의번호: 415-165-8183 / 비밀번호: 1004)



[교종 레오 14세] 9월 기도 지향

9월: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께 사랑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SEASON OF
CREATION**

2025 창 조 시 기

주제:

"평화와 희망의 **씨앗**"



**PEACE
WITH CREATION**
SEASON OF CREATION 2025

Garden of Peace
Isaiah 32:14-18

피조물을 돌보는 건

우리 믿음과 인류애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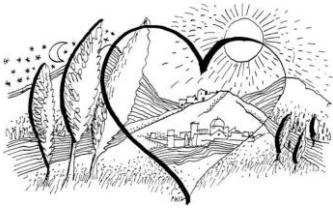
'이제 말을 행동으로 **실천** 할 때'

'창조시기'란?

- 1) 매해 **9월 1일**(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 **10월 4일**(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 2) 경축, 회심, 헌신을 통해 **창조주 및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기**
- 3) 공동의 집을 위해 그리스도인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기**

평화와 희망의 **씨앗** 그리고 환경 정의의 **실천**

- 예수님 : **밀알** - 죽는 씨앗의 표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보여주심
우리들 : 씨앗 -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씨앗**이며, 참으로 평화와 희망의 씨앗임.
- 인간 활동이 초래한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배척당하는 이들**임.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세상에서 피조물을 돌보는 건 우리
믿음과 인류애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회칙「찬미받으
소서」217항) → 기도와 함께 결단력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환경 정의**'를 실천할 때.
- '평화와 희망의 씨앗'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창조 질서 파괴 앞에 침묵하지 않고,
생명과 희망을 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



2025 창조시기 기도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 된 믿음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지금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창조세계에서, 또 저희의 참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탐욕과 파괴의 충동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구와 맺은 관계를 깨뜨렸음을 인정하나이다.

비옥했던 들판은 메마른 땅이 되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나이다.
풍요롭던 공동체들은 고통으로 물들고 땅은 부르짖고 있나이다.

사랑하올 그리스도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하며 평화를 주셨으니,
연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복돋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 온 세계 신앙공동체와 함께,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갖 갈등을 종식시키고
깨어진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 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피조물의 상처를 돌보고
세상이 입은 상처와 굳건히 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여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평온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순교자 성월 기도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 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21> 하나이고 거룩·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선생님, 교리 시간에 미사 때 바치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보면 가톨릭교회 4대 특징이 다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대 특징이 뭐예요?”

한 학생이 기특하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4대 특징과 함께 4대 교리도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4대 특징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제8항)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하나이다(하나인 교회)’.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몸을 이뤄 한 분이신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따르며, 전례 역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계제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이런 특성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성화돼 거룩해집니다.

‘보편되다(보편된 교회)’.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톨릭은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퍼져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구원 의지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모든 시대·민족·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은총 안으로 이끄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들인 백성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후계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4대 교리

가톨릭교회 교리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4가지 진리입니다.

1. **천주존재(天主存在)** :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2. **강생구속(降生救贖)** :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삼위일체(三位一體)** : 하느님이신 성부와 아들 예수님인 성자, 그리고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 이 세 분이 모두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느님은 창조사업, 성자 예수님은 구원사업,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사업을 하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진리입니다.
4. **상선벌악(賞善罰惡)** :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신도가 위급한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비상세례(대세) 대상자는 4대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만일 4대 교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도신경을 외워도 됩니다. 사도신경에 4대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2025년 8 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8,235	(2025년 7월 이월금)	성무활동비	2,000	(아캠 전달 사제: 8월)	
	후원금			구매/기타	113	(은행 송금 수수료)	
		1,500		가난기금	135	(8월 아캠기금 5% 적립)	
	납입금	아부다비	1,200				
		두바이					
		루와이스/바라카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0,935				2,248
							18,687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17,146	(2025년 7월 이월금)	가난기금 집행	7,360	(아캠 재난 지원/산정성심원 수재 성금)	
	모금액						
		135					
	개인	500					
			17,781				7,360
							10,421
수입 합계			38,716	지출 합계			9,608
							29,108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2) 김화영 라우렌시오 (3) 정혜옥 아네스(가난기금)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 R A K 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채팅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100% Handmade 100% Fresh Fruits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